

사탄의 세계에 대해

작성일 : 2009. 11. 26. (목) 새벽 3시20분

작성자 : 김진미 (부산열매교회)

2009. 11. 26 새벽

죄를 두고 회개기도 할 때 사탄의 세계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 하나님 말씀 *

사랑하는 자야~ 사랑한다.
나 여호와다. 오늘은 내가 친히 말한다.

오늘은 사탄의 세계에 대해 말하겠노라.
너희들이 흑암의 세계를 온전히 알아야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고
흑암을 이길 수 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하다.
교묘하게 인간에게 다가와
인간을 넘어지게 한다.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사탄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들어와.

사탄인지 본인 자신이 좋아하는 것인지
분별 못하게 한다.

그러니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라!

사랑이냐?
사랑으로 사탄이 들어 올 것이다.
사랑받기를 원하냐?

사탄이 사람으로 변장하여 사랑으로
네 마음을 빼앗을 것이다.

사명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나보다 너희가 더 사랑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

나보다 편안한 휴식과
안락함과 잠을 원하느냐.
달콤한 휴식과 잠이
너를 삼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라.

많은 자들이 사탄의 주관을
받고 살고 있다.
사탄의 주관을 받는 자,
사탄에 간음 당하는 자 많구나.
사탄에 묶여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지 못하는 자 많구나.

지긋 지긋한 사탄들!
너희는 나와 일체되어 반드시 멸하여라.
사탄의 인을 받은 자 많다 하였다.

죄에 대해 감각이 없는 자.
나의 말에 감각이 없는 자.
내가 어떤 말을 하여도
충격을 받지 않는 자.

자기 주관에 매여 사는 자.
늘 보이는 세계만 중심해서 사는 자.
보이는 사람을 중심해서 사는 자.
환경에 주관 받고, 사람에 주관 받고,
늘 그 심령이 흔들리는 자

늘 불평불만 비난, 비판하는 자.

교만한 자.

교만하여 사람 통해 하는

내 말 듣지 않는 자.

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재림에 깨어 있지 않는 자.

기도하지 못하는 자.

기도의 문이 닫힌 자.

성령을 무시하는 자.

성령의 역사를 감각하지 못 하는 자.

형제와 화평하지 않는 자.

늘 섭섭해 하는 자.

나에 대한 사랑의 감각이 없는 자.

늘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

사람을 중심하고, 인맥을 중심하고

사람을 쫓는 자.

참으로 미련한 자며,

사탄과 어깨동무하며

사탄의 인침을 받아 살고 있구나.

진정 너희는 사탄의 세계에서 속히 나오라!

참으로 당황스러운 것은,

자기가 사탄의 주관을 받고 사는지

모르는 자가 많다는 것이다.

속히 너희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라.

회개가 되지 않느냐?

기쁨이 없고 짜증이 나느냐?

기도가 되지 않느냐?

무감각 하냐?

무표정 하나?

대화가 없느냐?

나와의 대화, 사람들과의 대화.

하루를 살 때 내가 생각나지 않느냐?

우울하고 늘 사람에게 겁섭하냐?

자신을 주관하고 따라 다니는

사탄이 있다.

반드시 그 사탄과 싸움에서 이겨라.

지금 흑암의 세계에는

너무나 악질적이고, 교묘하고,

더럽고, 포악한 사탄을 이 섭리사에

각 사람에게 배치시켜

호시탐탐 너희를 노리고 있다.

조그만 틈을 통해

반드시 너희를 주관하고자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2~3놈 씩 이상 배치되어

틈을 노리고 있으니,

너희는 긴장하고 깨어 있어라.

군대 사탄도 온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하니

너희는 반드시 승리하라.

오직 나와 일체되어야 승리 할 수 있다.

나의 진리와 일체되어라.

나의 사랑에 일체되어라.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절대적인 순종, 실천이 필요하다.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니 간구하라.
모든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라.
영, 육으로 다 잠자는 자 많구나!

너희는 속히 나오라.
흑암의 주관에서 벗어나야
나의 주관을 받으며 살 수 있다.

영적으로 자신을 점검하라.
육적으로 보이는 세계 해결하고,
변해야 할 것 있고,
영적 세계에 묶인 것 풀어야 할 자 있다.

그러니 속히 분별하여
흑암의 세계에서 나오라.
사탄, 마귀, 귀신에게
매일 간음당하는 자도 많이 있다.

아예 끌어안고 열씨구나
좋아하며 사는 자 있구나.
매일 매일, 매 순간
매 순간 싸워 이겨야 한다.
찬양 하여라.

나의 진리를 온전히 듣고 실천하라.
속히 회개하여야 한다.
회개의 제단을 쌓으라.
기도하여라.

기도하지 않으면
100% 주관 받는다는 것 명심하라.

화평하라.
오직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을 쫓아내라.
육적인 사고 바꾸어라~
사랑하여라.

빨리 회개하고,
내 품으로 오라!
모든 인류를 주관하는
사탄과 싸워 이기자.

온 민족, 온 세계 주관하는 흑암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기도 하여라.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해 달라 기도하여라.

사랑한다.
나와 일체되어.
내 아들 예수와 일체되어.
모든 사탄과 싸워 이기자.
나의 군사가 되어라.

-너희를 지휘하는 나 여호와다